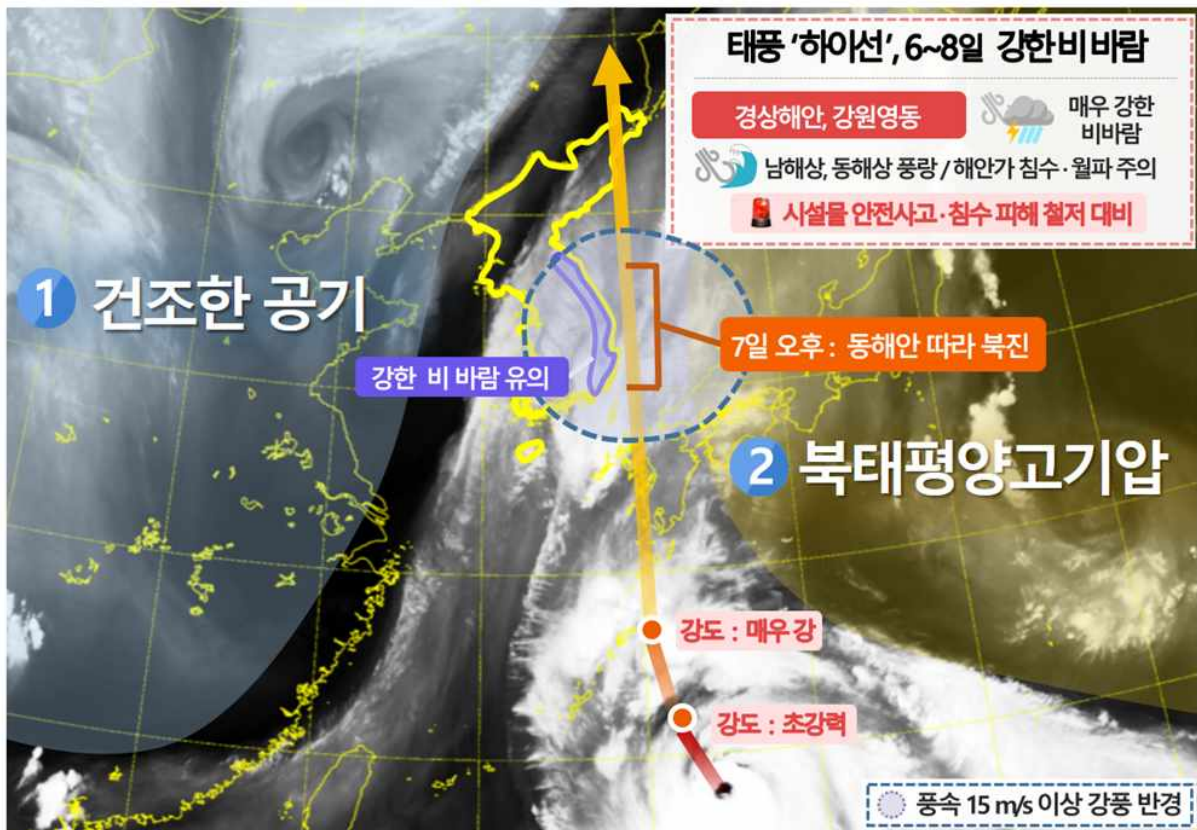


배포일시	2020. 9. 5.(토) 16:3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예보국 예보분석팀	담당자	팀장 박철홍 예보분석관 우진규
		전화번호	02-2181-0606

태풍 '하이선' 영향 경상해안과 강원영동 중심 강한 비바람

-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여 함경도 해안 상륙
- 전국 강한 비바람, 동쪽 지역 중심 매우 강한 비바람
 - 강원영동, 경상도, 울릉도·독도 중심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
 - 남해·동해상 매우 높은 파도, 해안가 폭풍해일·월파 주의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6~8일 예상진로]

[태풍 현황과 전망]

- (현황)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¹⁾’은 5일(토)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 중심기압은 915hPa, 강풍반경은 약 500km, 중심최대풍속은 시속 198km(초속 55m)를 보여 초강력의 강도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 (예상진로와 강풍반경) 7일(월) 아침에 제주도과 일본 규슈 사이를 경유한 후 오후에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여 지나겠습니다. 이 시기의 강풍반경²⁾은 약 360~400km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후 동해상에서 북진하면서 8일(화) 새벽에 함경도 해안에 상륙 하겠고, 오후에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되겠습니다.

- (예상강도) 6일(일) 오전부터 태풍의 발생지보다 수온이 다소 낮은 28℃ 안팎의 해역을 이동하면서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겠으나,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는 동안에도 945hPa 안팎의 매우 강한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30℃ 안팎의 고수온해역을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5일 자정까지 초강력의 강도를 유지하겠습니다.

1)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함.

2)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풍속이 15m/s 이상 나타나는 영역

- (변동성)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 ①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거나, ②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할 경우 예상 진로가 동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태풍과 일본 열도와의 마찰이 강해지거나 건조공기가 태풍 내부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전망]

- (강수 전망) 16시 30분 현재 태풍 북쪽의 비구름대에 의해 제주도와 경상도, 전남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6일 오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7일 밤에 제주도와 남부 지방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8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 태풍의 이동경로와 가장 가까운 경상도와 강원영동,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100~300mm(강원영동,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라남도과 전북동부내륙, 제주도는 100~200mm(제주도산지, 지리산·덕유산 부근 300mm 이상), 그 밖의 전국에는 50~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의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강원영동, 경상해안은 또 다시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 (강풍 전망) 6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7~8일 새벽 태풍의 이동경로와 가장 가까운 경상도와 강원영동에 최대순간풍속 시속 90~145km(초속 25~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 서해안과 전남남해안은 시속 35~110km(초속 10~30m),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35~70km(초속 10~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 (풍랑 전망) 6~8일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2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서해상에서도 3~6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 특히, 남해동부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의 낮은 중심기압으로 인해 해수면이 평소보다 약 1m 가량 더 높아지고 파도가 매우 높아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아지면서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크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라며, 해안도로·해안가 저지대는 폭풍해일로 인해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 울릉도·독도는 태풍의 이동경로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속하게 되면서 최대순간풍속 시속 180km(초속 50m) 이상, 물결도 최고 12m이상 매우 높게 일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침수피해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